□왜 지금 대학 이념의 재정립이 필요한가

대학의 존립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난 6일 단국대가 부도처리된 후 더 이상 대학도 도산의 무풍지대가 아님을 인식하게 되었다. 지금껏 대학은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오면서 대학 본연의 의무를 등한시 해왔다.

대학은 이제 확장을 통한 외형불리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본연의 의무를 정립하여 질적인 성장을 꾀할 때이다.

과거 대학의 이념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1. 시대와 사회체제에 따른 대학의 이념 및 가치변화
2. 현 대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이념

현대의 대학은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 조직을 계속 확장해 나간다.

그러나 단순히 대학의 규모나 학부(과)를 늘리는 것만이 변화·발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발빠르게 변화해 오던 대학들이 이제는 재정뿐만 아니라 교수와 연구 및 교육 등의 분야 즉 대학 본연의 기능에서조차 정체성 상실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한 현재의 대학들은 IMF 체제에서 학생수의 감소, 기업의 재교육 수요 감소, 산학 협력 자금의 급감으로 인한 재정난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6일에는 단국대가 최종부도처리된 바 있다. 그러므로 재정이 빈약한

교육에 대한 시대의 불안한 징후들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학적 노력이 많을지라도 통합된 이념이 없다면 이는 공허한 노력이 되기 쉽다

대학은 앞으로 존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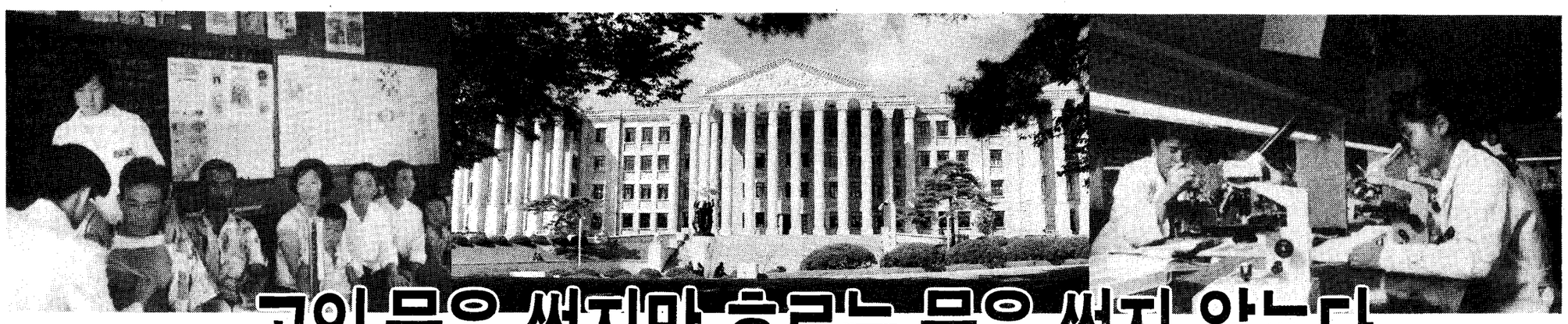
교육철학자 야스퍼스(Karl Jaspers)는 '교육에 대한 이 시대의 불안한 징후들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학적 노력이 비록 많을지라도, 통합된 이념이 없기 때문에 매년 쏟아져 나오는 저술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으며 교육학적으로 향상되지 못한 것들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쟁취한 자유를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자유 속으로 포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지금의 대학들이 위기를 맞게 된 원인을 잘 설명하고 있다. 대학은 그들의 이념을 등한시하고 있다. 그들이 추구해야할 이념 및 가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지금까지 사회의 변화만을 좇아 성장해 왔다.

물론 사회적 정치적 영향으로 대학은 변하게 된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교육하는 것이 대학 제일의 목표인 것을 감안하면 대학이 사회에 의해서 변화해야 하는 것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대학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새로운 이념이 정립되거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대학의 이념이 굳게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대학은 더 이상 상아탑으로만 존재 할 수는 없으며 대학 이념 문제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 우리가 추구했던 이념을 다시 생각하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재정립한 이념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학교 교직과 지은림 교수는 말한다. '또한 국가, 사회적인 지원이 더욱 절실한 때이며 IMF 체제의 극복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의 이념 정립 및 가치 방향 설정과 함께 역할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지은정 기자〉

□ 대학의 이념 시리즈 1— 시대와 사회체제에 따른 대학의 이념 및 가치변화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이 현 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

현대사회에서의 대학은 그 기능과 목적면에서 사회적 요구와 학습자의 교육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념적인 혼돈과 기능의 편중화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대학기능과 목적의 시대적인 혼돈은 전통적인 대학관과 현대적인 대학관 간의 이념적 정립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부여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능적 대학(functional university)과 인력배출에 치중하게 되는 도구적 대학(instrumental university)의 이원적 특성마저 띠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이념과 관련해 볼 때 1940년대에 독일의 실존철학자 야스퍼스(K. Jaspers)가 대학의 3대 이념으로서 주장한 연구, 교수, 사회봉사가 주된 대학의 이념으로서 인식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이념이라는 용어는 그보다 100년 앞서 영국의 뉴만(Newman)이 제창한 바 있다. 더구나 대학의 이념으로 수용하고 있는 연구이념, 교수이념, 사회봉사이념을 측정하고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대학들의 기능분화에 걸맞는 이념과 목적정립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특히 대학은 이념의 설정에 따라 바람직한 '이상'을 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회와 학생들의 교육적 욕구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념의 올바른 정립은 연구기능을 강조할 것인지 교육이나 사회봉사기능을 강화할 것인지에 관한 대학교육의 목적의 진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대와 같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효율적인 대학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참다운 대학의 이념 정립에 따라 '대학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대학 스스로 정체성(universityidentity)을 확립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특성화된 대학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가치관 정립 후 정체성 확립

대학의 이념은 그 변화과정을 살펴볼 때 동서양 간에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 주고 있다. 동양의 고대 대학들은 명덕을 밝히고(明明德), 백성을 새롭게 하며(新民), 지극한 선에 머무는(止於至善) 데에 그 본질적 특성이 있다고 보아 왔다. 그리고 대학의 이념 구현은 8조목(八條目)에 따라 인간을 교화(敎化) 시키고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관주도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두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서구의 대학들은 14세기 중엽 볼로냐(Bologna)대학에서 보아 왔듯이 학문연구와 진리탐구를 대학의 주된 이념으로 설정하여 학문적 연구집합(universitas)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근세 독일의 전형적인 대학인 베를린(Berlin)대학을 중심으로한 훔볼트(Humboldt)적 이념은 대학에서의 학문적 자유와 연구의 강조 그리고 인간형성을 대학의 주된 이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훔볼트적 대학이념은 '고독과 자유'에 두고 있는데 주로 연구중심대학의 이상을 주된 이념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학문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지식의 계발과 창조를 대학의 최대이상으로 간주한 것이다.

한편 영국대학들의 이념은 독창적인 학문연구에 의한 '교양적 지식인'을 배양하는데 두고 있는데 이러한 영국대학들의 특성은 독일의 연구중심대학의 이상을 수용하면서도 교육하는 대학(teaching university)의 이상을 이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국대학의 이념은 17,8세기를 시점으로 초기에 영국형 대학이념의 모방으로 시작되었으나 실용주의의 등장과 함께 교육과 사회봉사이념을 추가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려는 데 치중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대학은 그 기능면에 있어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을 배출하는 데 치중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 또는 산업인력수급대학으로 구분되고 있는 실정이고 미국형 이념과 독일형 이념을 접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의 이념은 이상 아닌 현실

대학은 변화하는 사회체제이며 규범과 전통을 지닌 사회적 인격체(social being)이다. 특히 현대 대학의 사회적 기능과 책무를 고려할 때 상아탑적 특성(Ivory Tower)을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고객중심의 교육적 실체(Client - centered educational entity)인지를 스스로 선언해야 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대학의 이념설정은 설립당시의 설립목적과 사회적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가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의 대학은 '학습중심체제', '경영중심체제' 그리고 '고객중심체제'로 변모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각각 다른 특성을 지닌 고유성과 지역과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가치를 지니도록 이념을 재정립하고 사회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이념과 목표의 설정에 있어서는 지난 80여년 동안 논의된 기존의 대학관 예컨대, 화이트헤드(Whitehead,1929)가 주장하듯 대학을 단순히 교수를 통한 지식의 전달이나 교수 개인에게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학습에 대한 창의적인 연찬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념을 수용한다면 대학의 목표도 이에 맞게 설정되어야 하고 교과과정 학과편제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교양의 전달, 전문직 교육, 과학연구와 젊은 과학자의 양성에 있다면 이에 부합되는 체제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을 독립된 '사고의 센터(center of independent thought and criticism)'로 수용하는 허친스(Hutchins)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산업화, 전문화 그리고 사회적 욕구에 부합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학은 변화하고 있고 변화의 실체로서의 적응과 개혁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특히 대학의 이념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점에서 현대 대학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학의 고민은 퍼킨스(Perkins)의 대학론이나, 게르(Kerr)의 대학론 그리고 근래 등장하고 있는 메가 버시티(Mega - versity), 신대학론, 가상대학(Virtual university)등에서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 — 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교원정책팀장 유현숙

장기적인 안목의 대학운영 필요

단국대 부도 사태는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대학이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이유는

대학이 학문탐구와 교육이라는 본연의 의무를 등한시하고 외형불리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교육은 양적 팽창을 통해 고등·전문교육의 대중화에는 성공을 이루었으나 학문의 깊이 있는 발전에는 실패해 그 폐해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다. 교육시장 개방 이후 교육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층적 연구가 부족한 것 또한 원인이다. 교육개방에 대해 막연히 대처하려는 대학은 시장개방의 경쟁체제 속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대학이 본연의 의무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데 본연의 의무란 무엇인가

대학 본연의 의무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 등 3대 기능이며 이는 대학이념과 상통한다. 과거 13세기에는 학생과의 만남을 본질로 하는 교육이 대학 본연의 의무였으나 19세기 들어 교육 및 연구, 그리고 대학이 속해 있는 지역의 사회봉사까지 대학의 의무가 확대되었다. 이제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대학 본연의 의무를 주장할 수는 없다. 정보화, 다원화, 인간화, 세계화(국제화) 등 많은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현대 사회의 변화 추세에 맞추어 대학도 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본연의 의무와 사회변화를 얼마나 조화롭게 할 것인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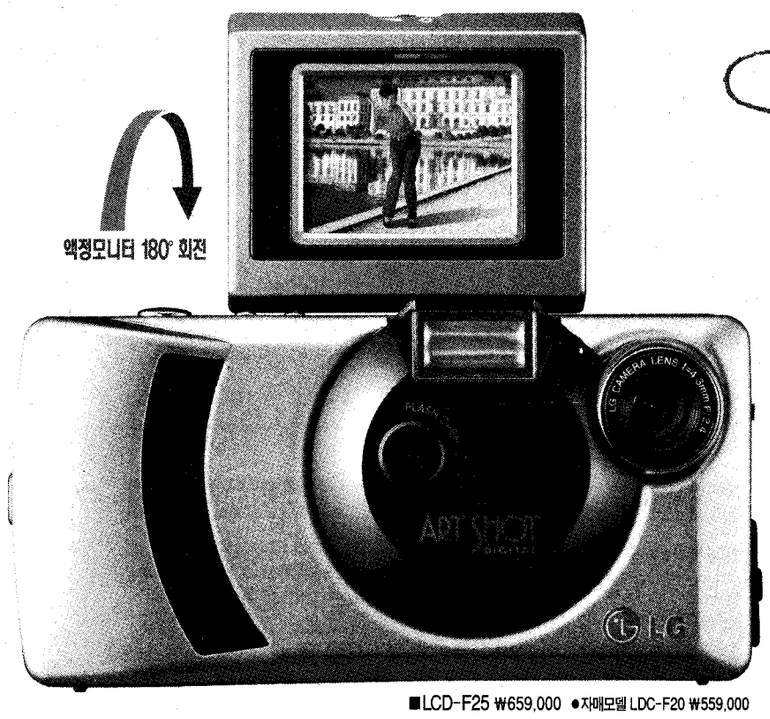
그럼 대학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본연의 의무 및 방향은

앞으로 대학이 추구해야 할 본연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우선 기초 순수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의 비율을 어떻게 적절히·조화시킬 것인지와 함께 교양과목을 다양화시켜야 한다. 또한 대학은 앞으로 근시안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운영이 필요하다. 2003년이면 대학의 입학정원이 대학 지원자보다 많아진다. 그러므로 단기적인 양적 팽창보다는 장기적인 질적 성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은정 기자〉

Champion정신
국가를 대표하여 세계 고객에게 시험받는 통과한 LG전자가 되겠습니다

"아~ 지겨워! 맨 날, 그 사진이 그 사진 같아…"



■LCD-F25 ₩659,000 ●자매모델 LDC-F20 ₩559,000

필름없이 찍어 편리하다!
영상편집으로 즐겁다!

"오~ 놀라워라! 영상편집기능으로 역사적인 달 착륙에 나도 한몫!"

카메라가 달라지면 대학생활의 추억도 달라져요
휴대폰도 디지털, 수첩도 디지털… 근데, 카메라는 왠 구석기시대?
난 달라! 한 장을 찍어도 LG 디지털 카메라 아트샷이지!
빵빵한 반도체 메모리 내장으로 필름없이 124장까지 거뜬하고…
PC에 연결하면 편집은 물론 인터넷 전송까지 O·K!
사진도, 대학생활도 내 방식대로 멋지게 편집하는 거야.

많은 사진도 간편하게 - 영상 데이터 저장
사진 한 장 찾는데 한 나절!
사진을 영상 데이터로 저장하기 때문에 사진 관리가 간편합니다.

편집이 자유자재 - 수정·편집 기능
PC에 영상데이터를 저장하면 누구나 편집이 자유자재- 디지털 앨범, 인터넷 홈페이지 등 폭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영상 데이트 - PC통신,인터넷 전송
편집이 된 사진을 인터넷이나 PC통신으로 전송해 보세요. 늘 색다른 영상 데이트에 더욱 반하게 될걸요!

내가 나를 찍어? - 액정모니터 180° 회전
'둘만의 여행, 사진은 누가?' LG 아트샷은 180° 회전되는 액정모니터가 있어 보면서 직접 촬영할 수 있습니다.

찍자마자 바로 본다 - 즉시 확인 기능
'이차, 눈을 감은 것 같은데!' 찍자마자 화면으로 바로 확인, 원하지 않는 영상은 즉각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큰 화면으로 - TV연결 기능
가슴 떨리는 축제,신나는 MT- LG 아트샷에 담아 보세요. TV에 연결하면 큰 화면으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LG디지털 카메라 아트샷

LG전자

☎고객상담센터 : ●서울지역(02)630-7777 ●인천지역(032)610-7777 ●대전지역(042)624-7777 ●광주지역(062)514-7777 ●부산지역(051)811-7777 ●대구지역(053)740-7777 ●수신자부담080-023-7777(클로버서비스) ●하이텔,천리안,나우누리:GO LGE ●인터넷:http://www.lge.co.kr